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용문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AI리그' 신설... 5월 20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 창업기업을 발굴을 위한 'K-스타트업 AI리그'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내 인공지능(AI) 리그와 혁신창업리그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K-스타트업'은 9개 부처가 협업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그동안 다수의 혁신 기업을 배출해온 창업 생태계 핵심 플랫폼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개편해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며, 예비창업자 대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분리해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된 AI리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미만 창업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선을 통해 선발전 상위 10개 기업은 다른 리그 우수기업들과 함께 통합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분야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창업리그도 같은 기간 모집을 진행한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예선을 거쳐 총 22개 기업이 통합 본선에 오르게 된다. 각 부처 리그를 통과한 130개 팀은

통합 본선에 진출하며, 이 중 20개 기업이 오는 12월 왕중왕전에 올라 최종 경쟁을 펼친다. 최종 수상 기업에는 최대 5억 원의 상금과 함께 후속 창업 지원사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이번 AI리그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리그를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더욱 활발히 등장하길 기대한다"며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지 임대수탁 제도' 전면 개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수수료 폐지·절차 전 과정 간소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지 임대수탁 제도를 전면 개선해 농업인의 이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올해는 수수료 폐지와 함께 신청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폐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없어진 데 따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편리해졌다. 공공데이터가 도입되면서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었다.

계약 방식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의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8천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후 절차도 간소화됐다.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크게 줄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건설협회, 역대 회장단과 미래 비전 모색

세종서 간담회 가져 건설업계 동향 공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1일 세종시 일원에서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역대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협회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21일 세종시 일원에서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역대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협회의 성장 기반을 다진 전임 회장단과 함께 발전추진을 도모

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68회 정기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건설업계 주요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업계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어 온 역대 회장단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협회 발전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배 회장단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방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남원시 대강면 일원에서 수해 대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청, 태풍·집중호우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대응 역량 점검에 나섰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남원시 대강면 일원에서 수해 대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광주지방기상청, 남원시, 남원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강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홍수에 보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 확인을 비롯해 배수시설 원격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긴급 복구 대응, 댐 방류와 제방 유실 상황에 따른 현장 통제 및 응급 복구 등이다. 특히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력 체계가 실제처럼 운영되는지 집중 점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수출새싣기업 지원 확대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새싣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출 역량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수 중심 기업의 수출 전환과 해외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약 17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홍보물 제작, 해외 시장 조사, 통번역,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등으로 구성됐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

용한 '컨소시엄형 지원'을 강화했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등록 전문무역상사 등과 협력해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수출 경험이 적은 초보기업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선발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관원 전북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계획이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공급되는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되

는 것으로, 도내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식품이 지원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공급업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인증 필지 현장 확인과 비인증품 혼입 여부,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꾸러미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구경(9慶) 브랜드'로 농식품 판로 확대

전북농협이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 구경(9慶) 브랜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21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 브랜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반 농식품의 판로 확대와 로코노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농축협 9곳과 함께 농협유통 전주점, 목우촌 전북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 구경(9慶) 브랜드'는 전북 지역 농축협의 특색 있는 상품을 하나로 묶은 공동 브랜드로, 2023년 출범했다. 참여 상품은 전주 누룽지, 공덕 고구마 가공품, 군산원에 짬뽕라면, 대성



땅콩, 동김제 떡볶이, 익산 참쌀떡, 임실 치즈와 요거트, 해리 소금, 전북인삼 홍삼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판로 확대 전략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추진과 한옥마을 팝업스토어 운영, 브랜드 마크 통합 적용, 세트상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